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승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주님 성탄 대축일



마티아스 스토머(Matthias stomer, 1615-1649), <동방박사의 경배>, 1640경, 캔버스에 유채, 오귀스탱 박물관

✦ 매일 오전 8시 <가정을 위한 기도>, 저녁 9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주모경>을 바칩시다.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요한 1,14)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그리고 사제, 수도자 여러분!

올해도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와 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겹게 사는 이들, 고통과 환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그분 친히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고 희망의 빛을 비취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느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 곁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좀 더 우리 가까이 계시고자 당신의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드님은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한 1,14).

○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인간 구원이라는 큰 뜻을 품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요한 1,10-11 참조).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사는 집을 찾지 못해 짐승이 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

습니다. 마구간은 어두컴컴하고 짐승들의 오물로 더럽혀진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 그런 어둡고 더러운 곳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구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탐욕과 미움, 낙담과 절망과 같은 감정과 생각들로 자주 우리 마음이 얼룩지고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천 년 전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던 예수님은 마구간과 같은 우리 마음에도 기꺼이 오십니다. 어둠을 밝혀주시고 더러움을 씻어주시고자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문 앞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고”(묵시 3,20) 계십니다. 그분께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도록 합시다.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 은총의 빛으로 어두운 감정과 생각을 몰아내시고 희망과 용기 그리고 이해와 포용이 자리 잡게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시어 구유에 눕혀지셨습니다. 구유는 소와 말 같은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눕혀지셨다는 것은 그분이 ‘떡히러 오신 존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으로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십니다. 그분은 당신



말씀으로, 당신의 몸인 성체로 우리를 영적으로 양육하고 길러주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분 말씀과 성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위로, 용기와 희망을 얻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이웃을 위해 자신을 쪼개줄 줄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많은 걸 받았음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가진 바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도록 이끌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어, 선행에 열성을 기울이는 당신 소유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티토 2,14). 우리가 선행에 열성을 기울여서 빵을 쪼개는 일을 부지런히 한다면, 세상에는 다름이 차차 잦아들고 평화와 기쁨이 서서히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 예수님은 사람이 사는 집을 찾지 못해 짐승이 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눕혀지셨습니다. 세상 한구석 외진 곳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외톨이’처럼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당신 아드님을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베들레헴 하늘에서는 수많은 천사가 나타나 그분의 탄생을 알리면서 찬미의 노래를 불렀고, 들판에서 양 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의 전갈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였습니다(루카 1,8-20 참조).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하느님을 생각과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고자 노력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느님의 위로와 기쁨을 전해주는 천사들이 나타나고, 마음과 힘을 보태주는 목동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신앙인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시고 살면,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하는 확신이 마음 안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수백 번 수천 번 거듭 태어나셔도 내 마음에 태어나시지 않으면, 성탄이 왔다고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탄절은 달력에 ‘성탄절’이라고 적힌 날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탄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 태어나시는 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날에 이루어집니다.

바로 오늘이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빛과 사랑이 우리 가정에, 이웃에게,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

2025년 주님 성탄 대축일에
천주교 의정부교구장

손희송



밤 미사



입당송 시편 2,7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제1독서 이사 9,1-6

화답송 시편 96(95),1-2,7,21-3,11-12,13(☉ 루카 2,11 참조)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
-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
-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고, 숲 속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 ☉

- 그분이 오신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진리로 다스리신다. ☉

제2독서 티토 2,11-14

복음 환호송 루카 2,10-11 참조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복음 루카 2,1-14

영성체송 요한 1,14

말씀이 사람이 되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낮 미사



입당송 이사 9,5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라 불리리라.

제1독서 이사 52,7-10

화답송 시편 98(97),1,2-3,7,3다-4,5-6(☉ 3다)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

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려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려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려라. 쇠 나팔 뿜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제2독서 히브 1,1-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

복음 요한 1,1-18(또는 1,1-5,9-14)

영성체송 시편 98(97),3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